

# 2021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 학생부종합 SW창의인재, 활동우수자 전형

### (소프트웨어학부, 디지털헬스케어학부, 디자인예술학부)

※ 제시문 숙지 시간 30분, 면접시간 15분입니다.

**【문제 1】** 다음의 각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제시문 1> 옳은 방법이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고, 지금은 우리에게 전승된 방법이다. 전통은 그러한 방법에 대한 일종의 보증서와 같으므로 경험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옳음에 대한 관념은 관습적인 것이어서 관습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기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위를 판단 받지도 않는다. 관습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옳다. 왜냐하면 관습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권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습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시문 2> 다문화에 대한 관용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존중하는 이성적 태도이다. 영국의 문화 이론가 홀은 '차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야말로 21세기에 개인이 지녀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타인의 생각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문화를 무조건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

<제시문 3>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도리이다. 인간이 윤리적 존재라는 점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인간은 윤리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정의와 부정의의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타인을 배려한다.

우리는 인간이 윤리적 존재로서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동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동물들도 새끼를 돌보거나 곤경에 처한 동료를 돕는 등의 이타적 행동을 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의 행동은 단지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달리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이성적 판단과 윤리적 규범 체계에 따라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제시문 4> 동·서양인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마스크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2009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동아시아인과 서양인 각 13명이 타인의 표정을 읽을 때 어디를 보는지 비교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연구진은 서양인은 입을 포함한 전체 표정을 읽는 데 반해 동양인은 눈에 집중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런 특징은 이모티콘에도 반영돼 동양에서는 웃는 얼굴을 나타낼 때 ^^를 쓰는 반면 서양인들은 :- )로 표현해 입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슬픈 표정 역시 ㅜ.ㅜ과 :- (로 동·서양이 차이가 있다. 결국 상대방의 입에서 상태를 읽으려는 서양인의 오래된 습관이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아사히신문에서 다나카 교수는 동양에서 눈을 가리는 선글라스가 무서움 등 불편한 느낌을 줬던 것은 상대방 눈에서 감정을 읽어온 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제시문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에는 동·서양 간의 문화 차이가 있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는 마스크가 동양계에 대한 인종주의나 낙인찍기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 지난 1월 중국 유학생이 영국 셰필드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언어적·신체적 괴

롭힘을 당했고, 지난달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중국인 여성이 미국 뉴욕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 캐나다 요크대학의 사회학자 해리스 알리는 "북미에서 마스크는 아시안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 용인되지 않는다. 낙인찍기가 된다"면서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이러한 낙인이 없어졌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했다.

(문제1-1) <제시문 1>의 관점에서, <제시문 4>에 제시된 동서양의 마스크 인식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시오.

(문제1-2) <제시문 2>에 근거해서, <제시문 5>의 '인종주의'나 '낙인찍기'에 대해 논하시오.

(문제1-3) <제시문 3>에 근거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서양인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 [문항해설]

(문제1-1)은 문화적 관습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마스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각 문화의 고유한 관습이 그 문화의 문화적 인식과 행위 양식 평가의 절대적 근거임을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다.

(문제1-2)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이다. 다양성의 존중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까지이다. 그 범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가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제시문5>의 '인종주의'나 '낙인찍기'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문제1-3)은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는다. 단순히 보편적 윤리 원칙을 통한 기계적 문제 해결을 넘어 자율적 판단의 주체로서 도덕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1 (20%)	마스크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의(또는 문화의) 차이는 <b>각 문화의 고유한 관습에 의해 그 절대성/옳음이 인정된다.</b>	상
	마스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중
	동서양이 문화적으로 마스크 인식이 다르다	하
1-2 (30%)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인종주의나 낙인찍기는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상
	다른 문화를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인종주의나 낙인찍기는 그에 반한다.	중
	문화가 다르다고 타인을 공격하는 인종주의나 낙인찍기는 옳지 못하다.	하
1-3 (50%)	마스크 착용 거부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조건적이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덕적 존재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소통	상
	마스크 착용 거부가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보편적 윤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소통	중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회피하거나 소통 부재	하

# 2021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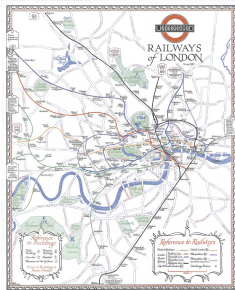
## 학생부종합 활동우수자 전형

### (디자인예술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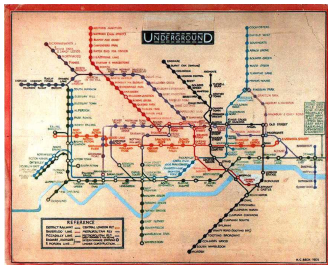
※ 제시문 숙지 시간 30분, 면접시간 15분입니다.

**【문제 2】**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현대사회에서의 정보들은 빠른 소통을 위해 시각이미지의 형태로 전달되며, 사람들도 그 형태로 저장하여 이용한다. 아래는 런던 지하철 노선도이다. 기존 노선도 <그림1>을 새롭게 디자인한 1931년 노선도 <그림2>는 오늘날 대중교통 노선도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림3>은 2007년에 노령 가족의 복약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된 타겟(Target)사의 안전 약병이다.



<그림1> 1928년 런던 지하철 노선도



<그림2> 1931년 런던 지하철 노선도(H. Beck)



<그림3> ClearRX 약병(D. Adler, 2007)

(문제 2-1) <그림1,2>의 노선도를 비교해 보고, 지하철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두 디자인의 차이를 설명하십시오.

(문제 2-2) <그림3>의 작품을 참고하여,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건강 문제의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말하십시오.

## [문항해설]

(문제 2-1): 영국의 런던 지하철 노선도 리디자인 사례를 보고 비교하여 자신이 관찰 분석한 의견을 말하는 문제이다. <그림1,2>는 고등학교 교과서 2종에 디자인과 생활과, 사회와 세계에 우리 주변의 정보 전달 시각이미지의 대표 사례로 수록되었다. 교과서에는 1931년 런던 지하철 노선도가 나오기 전과 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면접에서는 깔끔하다거나 직선과 곡선에 대한 선호 등 표면적 특징 보다 아래와 같은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면 A레벨이 될 수 있다. 1931년 이전의 런던 지하철 노선도<그림1>는 기존의 지상 철도 지도 위에 그린 것으로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실제 지리적인 지형을 충실히 반영하여 곡선으로 그렸지만 정보가 한눈에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중심가는 역들 사이 공간이 비좁고 노선들이 겹쳐져 텍스트 정보를 읽기가 쉽지 않다. 또 한정된 지면 탓에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역들을 표기하기가 여의치 않는 문제가 있다.

<그림2>는 <그림1>의 노선도를 1931년에 해리벡(Harry Beck)이 새롭게 디자인한 런던 지하철 노선도로서, 지리적 정보에 기초를 두기보다는 기호적인 해석을 하여 도시의 중심을 변두리보다 확대하고 역간격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하였다. 지하철에 탑승한 이용자에게는 외부 자연경관이나 지리 정보가 아닌 목적지까지 정차하는 역들의 수와 순서가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점과 직선의 간결한 기호 체계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었다. 단순한 직선과 점으로 표현한 이 시각 정보는 전 세계 대중교통 노선도의 원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문제 2-2): <그림3>은 미술교과서에는 안전한 삶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사례로 수록되어 있다. 자신의 할머니가 오랫동안 남성용 약을 잘못 복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노령 가족을 위해 진행한 안전 약병 디자인 프로젝트다. 기존에 불투명한 원통형 약병에 알아보기 어려운 수기와 스티커로 약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붙이던 형식이 개선되었다. 가족별로 다른 색 고리를 사용하고 약의 종류(유형분류)별로 약병 디자인을 다르게 하였으며 약병을 뒤집어 세우는 방식과 반투명 재질, 그리고 양쪽 평면 라벨에 가독성 좋은 정보타이포그래피 적용까지 노약자 페르소나의 복약 경험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약을 혼용하여 복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누구나 손쉽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지원자들이 <그림3>의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 문제에 대하여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준비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보조 질문을 주어 도울 수 있다.

(보조질문)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인상 깊은 디자인의 사례를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2개 항목 중 A레벨이 2개 있는 경우(논점 3개 이상 있음)	A+
	2개 항목 중 A레벨이 2개 있는 경우(논점 2개 이상 있음)	A0
	2개 항목 중 A레벨이 2개 있는 경우	A-
	2개 항목 중 A레벨이 1개 있는 경우(B가 1개 있음, AB,BA 조합)	B+
	2개 항목 중 B레벨이 2개 있는 경우(혹은 A와 C가 있음, BB,AC,CA 조합)	B0
	2개 항목 중 B레벨이 1개 있는 경우(C가 1개 있음, BC,CB 조합)	B-
	2개 항목 중 C레벨이 2개 이상인 경우	C